

기획 **격동 2007**

19대 총여학생회



권승이 ox

학생회 일을 시작한 2007년, 예상치 못한 총투표를 겪으면서,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공약을 하나하나 이행하면서 나에게 총여학생회 밖의 친구들과 만남을 기억하는 것은 차츰차츰 환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가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그저 답답하다. '총여학생회는 대체 뭘 하기에 그렇게 바쁘냐'는 질문들을 학년 초에 들었을 때는 왠지 모를 억울한 감정이 들었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여름의 폭풍처럼, 게다가 만남 여름인 양 몰아쳐 일이 줄지 않을 건만 뭘 하나요? 그러나 지금은, 총여학생회실 안에서만 보이고 그 밖에서는 보기 힘든 준비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와 같은 말을 요즘에 들으면 억울하지만은 않다. 이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나 싶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무뎠진 것은 아닐 것이다.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도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담담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총여학생회의 온갖 경험들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나의 확신이 더 강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총투표 기간을 비롯해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사람들 덕분일 게다. 그들을 만나면서 얻은 에너지는, 고립되어 있는 듯 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듯해서 혼자 땅 파고 싶은 생각이 새록새록 들 때마다 나를 세워주는 힘이 되었다. 총투표 기간 동안 총학의 총여폐지론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총여인들과 뜻대 세워가며 논쟁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쓰다듬어 주면서 얻은 연대감은 약해지려는 나를 보듬는 에너지원으로 남았다. 언제 또 내가 이렇게 사람냄새 풀풀 나는 온기와 연대감을 내 힘의 자원으로 남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 힘들던 총투표기간에도 여성주의 운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연대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낮밤 없이 총투표에 관련해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행하기로 했던 공약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여성주의 세미나는 총여학생회 활동 중에서도 여성주의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과 직접 만날 수 있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포기할 수 없는 여성주의 활동이었다. 게다가 당시 총학의 '왜곡된 여성주의'가 학내에 율려 퍼지는 시점에서 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학내의 이성애중심주의에 균열을 내기 위한 첫 시도로 기획했던 레즈비언 문화제 역시 포기할 수 없었다. 물론, 그 당시의 나를 상기해 봤을 때 일종의 오기(너희가 아무리 없앨라 그래도 우린 없어지지 않아!, 혹은 더 열심히 운동해주겠어! 와 같은)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세미나를 통해, 레즈비언 문화제를 통해 또 다른 여성주의자를 만나고 학내에 총여학생회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학생들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내가 2007년에 총여학생회를 같이 할 수 있었고, 이런 험난한 경험들을 총여학생회의 여성주의자들과 해쳐 나갔다는 것은, 나에게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매체를 통해 나에게 행운이었던 경험들을 학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대체 총여학생회는 뭐해?' 라고 나에게 무심히 질문하던 나의 지인들이여, 이 매체를 보시라. 내가 수업을 못 나가고, 학점을 못 챙기고, 밤잠 못 자면서 지낸 그 역사, 그 반쪽거리는 경험이 이 신문에 다 나와 있으니.

새록새록 들뜬불곤

Contents

- 2 [기획] 연세재단은 왜 돈을 안쓰나요? - 연세재활학교 이야기
[비평] 이것은 언론이 아니다
- 3 [기획] Inside OUT이 다시쓰는 총투표 사태
- 4-5 [기획] 소통 그게 뭐가요? 먹는건가요?
[후기] 총여학생회 일년이라
분홍색 문 로망
- 6 [기획] Inside OUT! 이성애중심주의 전복기
- 7 [기획]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운동팀 (아래서 묵)의 일년나기
[광고] 제5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8 [기획] 총여학생회가 성명서를 내는 이유
[광고] 생리결석계 공식제도화

기획

연세재단은 왜 돈을 안 쓰나요? - 연세재활학교 이야기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있다. 19대 총여학생회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학생 단위와 만나고, 학내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승리로 이끌고자 했던 투쟁이 떠오른다. 지난 겨울 본관 앞에 천막이 세워졌고, 재활학교 학부모님들과 학내의 많은 단체들이 모여 재활학교 신축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안으로 투쟁했다. 두 달여간의 투쟁으로 연세대 내에 재활학교 신축이 확정되어 부지가 선정되었고, 천막은 접었다. 그러나 시간은 잘도 가고, 많은 것이 묻혀져 버리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난 본관 앞 투쟁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12일, 재활학교 학부모님들이 재활학교 신축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신축부지가 결정 나고 이에 대한 공사로 진행 중에 있지만, 신축되는 재활학교가 현재 재활병원에 있는 재활 학교와 무엇이 다를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 재단은 재활학교를 재단 하에 두면서,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공정한 열망이 있는 양 이를 홍보해왔지만 실상 재활학교에 책상하나, 교육 기구 하나 지원한 적이 없으며 이를 위한 예산 책정 또한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재활학교 내

의 교육 시설 마련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직접 발전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재활병원 한 층에 있었던 재활학교는 그간 '복도 학교'라고 불리었다. 교실 안에 휠체어가 모두 들어갈 수 없어 복도에 휠체어를 두어 화장실을 갈 때면 항상 비좁았던 복도는, 개학식과 졸업식을 할 곳이 없을 때면 이를 진행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지난 천막 투쟁을 통해 재활학교 신축이 결정 났지만, 신축 공사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몇 개월을 넘기고서야 착공이 되기는 했으나, 신축된다고 하여 재활학교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축되는 재활학교는 학군단 뒤쪽에 그 부지가 선정되었고,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만이 배치되어 있을 뿐, 재활학교 학생들의 운동 치로실, 교육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등은 여전히 전무하다. 재활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돕고자 교대로 학교에 가시는 학부모님들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어, 복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여기에 그간 재활학교의 운영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이뤄져왔는지를 보여주는 실례가 있으니, 30년 동안 교장 직을 역임해온 재활학교 교장 또한 재활학교의 지원과 신축에 전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재활학교 학생들이 효과적이고도 지속적인 수업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신축되는 재활학교에 대한 추가 설계와 이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활학교가 마땅히 주장했어야 했던 요구들을 묵살시킨 주체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경계와 비판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연세 재단이 서로 지원과 금액 책정을 미루며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그 책임을 회피하며 재활학교의 소속이 어디냐를 따져가는 사이, 재활학교 학

생들의 교육권은 묵살되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재단, 연세대가 주제로 나서지 않는 태도는 비단 연세재활학교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진 학내에서 장애인을 비가시화시키는 이러한 태도는 학내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떨어져 있지 않다. 재활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과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재단의 태도는 계단을 올라야만 이용할 수 있는 학생회관, 높은 턱으로 이뤄진 강의실이 보여주듯 연세대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던 지난 겨울을 기억한다. 그 당시 우리는 분명 본관 앞 천막에서 연세 재단을 향해 연세 재활학교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재활학교 신축 부지가 결정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재활학교 신축일 뿐이다.

연세재활학교는 이제 막 학내에 그 존재가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관심만으로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세재활학교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에 많은 학생들이 동참해야 한다. 총여학생회 역시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할 연세재활학교 장애인 교육권 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로, 여성주의적 시각과 이에 비롯한 활동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다.

연세재활학교가 궁금하다면?

연세 재활학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생 연대 (공존) 커뮤니티

club.cyworld.com/ys1218

연세 재활학교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cafe.daum.net/mother2006

비평

이것은 언론이 아니다 - 문화일보 사태에 부쳐

요즘 기사들의 트렌드는 모든 비유 혹은 사례를 '신정아 사건'을 통해 드는 것이다. 네이버에서 '신정아'로 검색하면 사건과 하등 관련없는 기사가 쏟아진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신문 기사와 기타 '카더라 통신'으로 이 사건의 행보와 같이 그녀의 사생활과 '있었을지도 모르는' 몸로 비의 의혹, 그리고 그녀 및 관계자의 온갖 신변잡기를 접해왔다. 단 한 사람을 통해 거짓말과 도덕성에서 성적인 관계망, 심지어 종교계와 청와대까지 언급할 수 있는 이번 사태는 한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한마디씩 떠들 수 있는 확실한 가십거리다.



끊임없이 사건 당사자의 성격, 교우관계, 취향 등 사적 영역의 아이터들이 선정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신문 1면, 포털 메인에 뒀다. 남의 사생활을 엿보기 좋아하는 비겁한 행태가 언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정치'와 '여성'을 조합해내지 못하는 빈곤한 상상력의 남성중심적 시각이 사안을 다루며 그것을 점점 더 탈정치화했다. 따라서 사건은 정치적 네트워크나 공공 로비활동의 실태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유혹자 여성이 일으킨 공적 영역 분란'으로 규정되었다. 뉴스를 통해 그녀가 어떤 과자를 먹고 싶어했는지, 관계자와 어떤 대화를 어떤 호칭으로 주고받았는지까지 알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한 보고서를 받은 것은 그에 연

유한다. 이렇듯 언론은 한국 사회의 집단관용증을 자극하고 강화해왔다. 아니, 그것을 창출하고 꾸준히 이끈 장본인이다.

이러한 일련의 지저분한 행태의 정점에 문화일보 사태가 있었다. 위와 같은 현상을 '잘' 파악한 문화일보에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당사의 신문,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그것의 선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사의 편집국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 증거라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게재했다"는

대답을 했다. 결국 사건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문화일보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여성의 몸을 보고 즐길만한 것으로 인식하는 기득권 남성들의 시선으로 신문이 만들어지고, 그 시선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형포이고 폭력이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는 그저 당연한 상식이다. 도덕성을 의심받는 여성에게는 '담연하' 집요한 사생활 탐색과 같은 인권침해도 가능해야 하며, 대대적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러한 일을 통해 모든 여성의 공공 영역 진출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성폭력적 보도의 가능성이 여성의 모든 활동에 심리적 위축을 발생시켰지만, 언론을 판정하는 기득권층의 사고는 그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성은 '정치적이고 공식적인 남성'의 기를 흠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위험하고 사적인 존재'라

는 편견은 그들에게 편견이 아니라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편집국장 또한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 하나이고, 그는 그저 솔직했을 뿐이다.

사실 이러한 반여성성은 '일간 문화일보'처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일상이고, 한국의 '문화'다. 다른 언론들은 누드사진을 실지 않았을 뿐, 기본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문화일보와 다르지 않다. 방길 성폭력 사건을 다룬 기사에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사건 발생 시각에 방점이 찍히고, 여성 정치가의 인터뷰는 그녀가 얼마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집중한다. 여성의 모든 활동을 사적 영역으로 환원하고, 그녀들을 '암전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으로 이분화함으로써 '나쁜 여성'에게 도덕적인 지탄과 전사회적인 배제의 폭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이끄는 이들 언론의 당위이며 의지다.

이러한 반여성적 관점은 언론에만 만연한 것 또한 절대 아니다. 여성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성기결합 여부로 성폭력의 경중 혹은 발생여부까지도 나누는 법제도, '예쁜 애보다 못생긴 애가 더 서비스가 좋다'는 음담패설이 대통령 후보의 입에 오를 수 있는 정계,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생활공동체를 떠나 갖은 혐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학내 분위기 등, 그 어디가 이러한 전사회적 반여성성에서 자유롭겠는가? 문제적인 언론은 아마도 문제적인 한국 사회 자체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견지하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이 아니다.

성찰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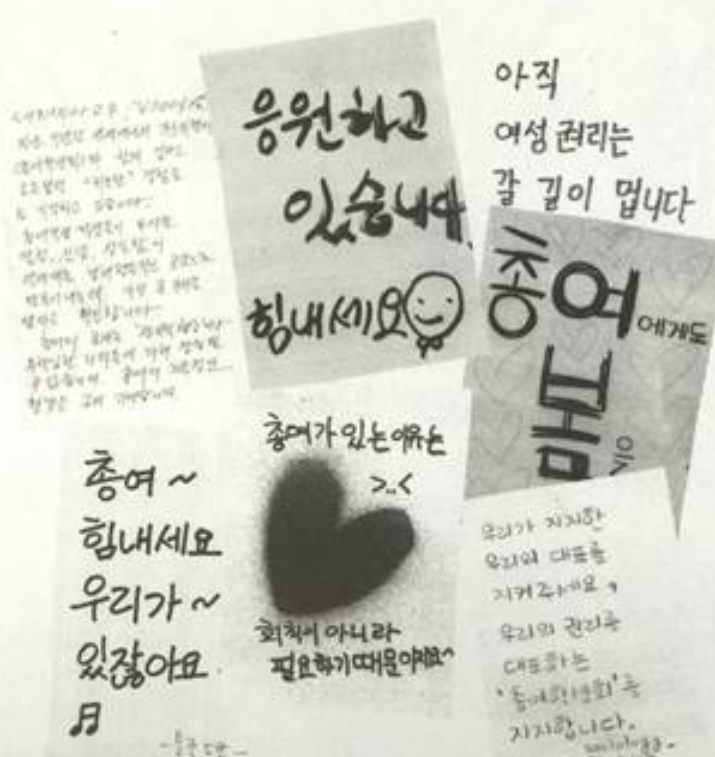
혹 <Inside OUT> 3호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라면 기억해주실까. 지난 2 번의 <Inside OUT>에서 총여학생회는 모두 총투표

와 관련한 글을 실었음을, 아, 혹시라도 총투표라는 단어가 이 글을 읽는 당신께 낯설진 않기를 바란다. 그저, "아 또 총투표?" 라는 총투표에 대한 지난한 이야기들에 대한 짜증 섞인 반응이나, "총투표가 또 왜?" 라는 그때의 여성주의에 대한 비방과 허무명량한 이야기들이 떠올라 열 받는 반응이나,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신다면 기쁘겠다. 필자에선 이 단어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기에 올해 여름 연세대를 휘젓고 지나간 총투표 사태에 대해 아직은 당신의 감각이 남아있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찜찜하게 남아있는 총투표 사태에 대해 풀어내고 싶은 생각은 아직도 많다. 그 사태의 한가운데서 함께 육하고, 글 쓰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웃고, 짜증냈던 친구들과는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며 다시 한번 오만육백가지의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새삼스레 "그때... 총여학생회 많이

기획

Inside OUT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2007 총투표 사태



힘드셨죠?" 라는 물음을 받을 때에는 어디 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심장을 가다듬기도 한다. 아직도 그때의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대응에 바빠 풀지 못한 마음속 용어리와 화는 가시지 않았고, 별소리에 대한 대응을 하느라 여성주의,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싶어 끊임없이 우리의 활동을 미처 내놓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활활 타오르는 화 또한 크게 남아있다.

게다가 총투표는 그 때도 지금도 총학생회의 발언과 움직임이 중심이 되어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한번도 논리적이 않았던 그들의 소리는 그들의 권력을 빌어 중심에 있었던 반면, 명확한 논리적 비판이, 그리고 정치가 존재했던 우리의 이야기는 주변으로 밀리며, 언제나 반박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성명서, 그때의 유인물, 그때의 논의를 진행시켰던 우리들은 울고, 웃다가, 지금도 살아남아 총여학생회실에서 일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활동을 계획한다. 그때는 죽어있었던, 그것이 편했던 우리, 이제 <Inside OUT>의 2007년을 돌아보면서, 살아남은 우리의 역사, 우리가 주체였던 총투표의 사태, 그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아래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우리의 기록이다.

MEMORY

3월 17일

내 모든 휴일과 앞으로 한 달간의 시련의 시작이었다. 종종 후회한다. 그 때

3월 20일
- 참내 아이가 없어서 이젠 뭐.. 분노게이지는 250% 상승했다.

3월 21일

(44대 총운위 - 임시 학운위 소집 공고, 총학생회 - 총학생회칙 전면 개정안을 인건으로 한 학생 총투표 공고)

3월 22일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학교 시작)

3월 23일

(총여학생회 학내 언론에서 주최하는 총투표 공청회 거부입장 발표)

3월 24일

(총여학생회 중간고사 기간에 공청회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공지)

3월 25일

(총여학생회 중간고사 전일, 총학생회 첫 번째 공청회)

3월 26일

(총여학생회 학내 언론에서 주최하는 총투표 공청회 거부입장 발표)

3월 27일

(총여학생회 중간고사 전일, 총학생회 첫 번째 공청회)

3월 28일

(총여학생회 중간고사 전일, 총학생회 첫 번째 공청회)

3월 29일

(총여학생회 중간고사 전일, 총학생회 첫 번째 공청회)

3월 17일

내 모든 휴일과 앞으로 한 달간의 시련의 시작이었다. 종종 후회한다. 그 때

3월 22일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학교 시작)

- 지지분한 총여생, 지지분한 물공들로 반박반박한 사람들을 만나러니 조금 민망했다. 그래도 뭐 다들 웃으면서 넘겨주더라. 아 이 호호함

4월 4일

(총여학생회의 4.4 자보전)

-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훈훈해지고 내 몸 위에서 햇빛이 날 내리쬐는 듯 하다.
-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 다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함께 자보전을 준비하지 못하고, 중도 앞에 와서 자보전을 봤을 때 총여를 대할 때도, 언론을 대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나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이 너무나 컸다.
- 대망의 4.4 자보전과 친구들은 중국 해안으로 졸업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난 중도 앞에 남았다. 친구들은 해수욕을 즐겼지만, 난 그것보다 훨씬 예쁜 지지엄사를 보며 흐뭇해 했다. 가장 총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정치를 다시 한번 학생들 앞에서 선전할 수 있어서 비록 짐은 제대로 못지고 얼굴을 통통 부은 채로 중도 앞을 지켰지만, 행복했다.

4월 19일

- 공청회가 끝나고 심심분 뒤에 화칙 개정안을 다시 고친 버전이 등장했다. 공청회도 무산 시켜놓고 2.0은 알아죽을...
- 끊이지 않는 정말 많은 언론 매체의 인터뷰.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일을 반복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고 싶었다.

3월 18일

(연세 춘추 1면에 '총여 총여 대제 가구 김토종'의 총여학생회장 인터뷰가 실림)

- 글 쓰다 화장실 가는데 무섭더라. 이게 태려의 공포인가 싶었다.
- 새벽 1시에 자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왜 내거하는 여성해방운동은 다 이 따위냐고 소리치며 울었다. 아아 이때가 싸움의 시작이었는지도, 하지만, 아예로 질 수 없었다.

3월 26일

(임시 학운위)

- 총투표에 반대한다는 학운위원의 결의문이 나왔다. 총학생회는 당연히 안 된다.
- 문장 하나하나를 외치는 이상한 사태가 있었지만, 열심히 비프로 세고, 속기 폭도 작성했다. 총투표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4월 28일

- 아침 일찍 정문 앞에 나가서 반박 유인물을 뿌렸다. 어떤 남성이 유인물을 받아가지고 막 악적으로 꾸겨서 버렸다. '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었다.

4월 6일

(총여학생회 연세 춘추 주최의 총투표 좌담회 불참 의사를 밝힘)

- 나는 일기장에 '편히 총여까지 마'라고 써 놓았다.
- 그렇게 계속 못나오겠다는 거구나. 하고 술을 포기 하고 있었다.

4월 13일

- 월요일에 학교에 와서 금요일에 집에 들어가는 것은 나에게 거의 당연한 일이었다.
- YBS에 들어가서 작년 선거 영상을 봤다. 지금은 원안히 떨어져서 하루적으로는 우주와 상어가 통신통실히 나 못하고 있고, 바로 옆에 총여장도 못하고 있었다. 슬프면서도 판해지는 영상이었다.

4월 26일

- 괜한 학생회비 시비며, 가입하지도 않은 한총련 가입까지 운운해가며 비방에 비방이 끝을 달았다. 열받아서 반박 유인물을 만들어서 뿌리기로 했다. 고단한 회의 끝에 밤을 새워서 글이 완성되었다.

5월 4일

(4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된 총투표, 26.74%의 투표율로 무산)

- 끝났다는 생각과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고생했다며 고맙다며 축하한다며 서로를 인아 주었다.
- 총투표가 끝났다. 무산되었다. 드디어 나에게 봄이 왔다.
- 총투표가 끝났다. 기쁘지는 않았고, 담담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일까. 총여학생회는 우리의 말을 얼마나 들었을까. 알 수 없었다.

누군가 말했다. 총여학생회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총여학생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또 누군가는 말했다. 총여학생회, 고맙다. 덕분에 총여학생회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라고. 총투표는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순간순간 빛났던 우리, 서로에 대한 지지와 연대, 그 파장의 힘을 남겼다.

그래, 어둠속에서 별은 더 빛나는 법이니까.



소통이 뭔가요?
먹는 걸까요?

소통은 나의 힘!

소통은 나의 힘!

나는 굉장히 작은 데서 즐거움을 찾는 걸 좋아해. 처음 참여학생회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존재하고 또 사소한 내 이야기에도 너무나 공감하는 느낌을 받아서 행복했어. 서로의 경험을 얘기하며 즐거운 소통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아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문화제로 풀어낼 때는 또 다른 소통의 즐거움을 느꼈어. 학생회관 앞에 커다란 천막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우리의 얘기를 학생들에게 전할 생각에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던지, 간간히 참여코너에 붙은 포스트잇에 써진 지지의 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면 그냥 스쳐지나간 사이였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문화제를 보았고, 거기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다는 생각에 기본이 편히 훈훈해졌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우린 분명 소통을 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어. 살은 오만대에서 참여학생회를 취재하겠다는 기자들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 것인가'였는데, 이렇게 소통이지 뭐겠어?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나에게게 소토의 맛을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얼마나 소통이라는 단어에 답답하게 묶이고 있었는 지 느껴지는걸. 글쎄, 난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학생들과 소통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아직도 말 이 막히고, 숨이 막혀, 국어사전에 소통은 이렇게 나오더라. [명사. 1.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허, 난, 짹 짹 놀랐어요. 이게 학생회와 학생 사이의 가까움을 설명 하고 학생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고, 그에 걸맞은 활동들을 해나가는 기구이지만, 이것이 모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학생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향할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내가 정의하고 있는 현 사회는 각자의 성, 성정체성, 재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폭력과 억압을 작동시키고, 이로써 그 각각의 존재를 비가시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게다가 소용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학생회의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소통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학생회와 학생을 동떨어진 두 집단으로 보고 있잖아. 이들이 함께 간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집단으로 상정하고, 소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의문이야. 난, 그것이 대변되지 않을수록, 대표할 수 없는 것일수록 잘하는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난 소통이라는 단어는 몰라. 나에겐 우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진행과, 피드백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마지막의 평가까지가 있을 뿐이야.

중요 학생들을 대변하나요, 가르치나요? 라는 물음과 함께
총여학생회의 소통의 가능성을 논했던 그대들이 생각한다.
또 지금은 그저 웃을란다.



소통의 속도가 트이길 바라

학생회는 학생들과 동떨어진 집단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함께 지키자는 '자치 규약'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게 학생회에 관심 없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처럼 느껴졌나 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동체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공존하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말하기 방식이 잘못되었는지도 몰라. 나는 그런 부분이 막막하고 어려우면서도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생각하게 됐어.

우리 이런저런 것들 마련해 놓았습니다. 놀러오세요, 찾아오세요, 읽어보세요, 하고 참여자를 원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그냥 귀찮은 소리였을지도 몰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성주의는 그들의 생활 자체를 뒤흔드는 것들이었으니까. 성찰을 요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내 삶을 바꾼 것처럼 말이지. 워낙 다들 바쁘기도 해서 더 귀찮지 않았을까?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갖가지 방안을 생각했어. 먼저 말 걸고 손 붙들고 고민하도록 부추기는 건 어떨까. 우리는 한 번도 들어대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기도 해. 더 친숙한 말들로 설명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쓰는 단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 여성주의 단어 해석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봤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다른 매체를 통해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더 잘 와 닿잖아. 사진전이나 영상전을 만들어볼까. 아,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들을 생각하며 사실 나는 너무 즐거워. 우리의 여성주의 정치가 학내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올바른 것을 선전해서 사람들이 그 올바른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 운동을 하는 이유잖아.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힘나는 것 같아.

새로운 생각들에 나의 심정은 공명한다.

총여학생회 1년이라.....

내가 느끼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느끼는 대로 쓰는 것입니다.'

레즈비언 문화제 할 거라니, 좋다고 별 생각 없이 총여학생회에 발을 들인지도 1년이 지났구려. 오리

가 되고 오리송

은 불러주는 사람들에게 휩싸여 사람들과 정이 붙고 여성주의에 빠져 산지도 1년이 지났구려. 어찌 보면 제대로 낚인 것 같지만 낚일 운명이었던 것 같기도.

태어나 처음 팔복질을 배우고 "투쟁"을 외쳤던 재할학교 천막이 떠오르는군. 중학교가 없어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는 학생들과 이를 지켜볼 수 없어서 거리로 나온 학부모들, 정신지체 장애인인 우리 이모와 외할머니의 상처가 떠올라 집회 때 자주 눈물이 나왔지. 연세재단에 속해있는 학교임에도 땅 위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중학교도 만들 수 있도록 정관 을 고쳐 달래도 천막을 칠 때까지 해주지 않던 연세재단에 분노가 일어. 집회 때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재할학교학생을 앞에 두고 고시공부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뜬 데 가서 하라던 수수한 차림의 그 친구가 머릿속에 남아.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때에는 '나를 응원하기' 프로그램에서 고무장갑을 찢어 깃털로 장식하고 색칠한 후 색다른 응원곡 안무를 만들었지. 아카라카나 연고전 때 응원이 '남성' 적이고 비장애인중심적이고 획일적인 것을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응원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기억에 남는 건 다른 팀들의 안무를 보고 못 어찌찌던 모습아네.

학기가 시작되고 곧 있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았으니, 이른바 '총학 회직 개정 사건'. 앞집에 살고 웃으며 인사하던 총학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연세춘추1면에 총여학생회를 없애겠다는 문구를 달고 나타난 것. 총투표로 총여학생회를 없애겠다는 그 논리, 사회적 소수자 단체를 그런 식으로 없앨 수 있다는 생각에 내 목도 언젠가 '민주적인' 투표로 동감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두려움에 떨었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미친 듯이 자보를 붙이고 다녔어. 피곤과 스트레스에 절은 총여학생회 사람들의 모습, 매우 일찍인 총학생회장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네.

이 와중에도 레즈비언 문화제를 기획 할 때만은 반짝반짝 했었지.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는 나의 모습에 놀라기도. 기억나는 건 게이루키, 레즈비언파이를 팔며 바라보면 맑은 하늘의 햇빛과 피곤하지만 "난 죽지 않아"라고 외치던 운동의 세포들. 커다란 무지개폭발을 만든다고 재봉질하며, 땀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에 뿌듯해하던 느낌.

세미나, 두둥둥. 총여학생회에 와서 세미나를 참 많이 한 것 같아. 책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언제나 내가 배울 것, 고칠 것, 들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걸 느끼지. 어느새 점점 말이 늘어가고 있는 나를 조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초에 댄지 예견했었어. "올 한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것을. 그 변화의 핵심에 총여학생회가 있었지. 친구들이 "총여학생회에는 남자같은 여자가 많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그 총여학생회에 남자인 내가 있지. 아직도 소파에 누워 자다가 문이 열리면 매우 민망해 하지만 여성주의는 나에게도 무척이나 소중한 언어이고 이 언어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총여학생회는 무척이나 소중한 공간이야.

그리고 보니 총여학생회 들어와서 단어에 따옴표 붙이는 거 배웠네.

by 오리

후기

분홍색 문 로망 - 총여 가을세미나 '여성주의 바람이 솔솔~'



학관 3층에는 분홍색 문이 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두드릴까 말까...

그런 9월 13일 7시 경의 일이었다. 여성주의 세미나를 오는 처음 시작한다는 총여학생회살에 들어가고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지만 6시 반에 시작한다는 세미나에는 발걸음 늦었다. 게다가 여긴 '바로 그' 총여살이 아닌가. 후덜덜... 막연히 여성주의라는 것을 배우고 하고, 일상화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느 세무타인과 총여살은 나의 천망...의 대상이 되어있지만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남카롭게 비판하고 행동해야 할 것만 같은 두려움도 함께 있었다. 나는 총여살 밖에 전연되어 있는 온갖 빛깔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아, 여기 아늑해...라면서 혼자 놀고 있었다. 여럿이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2-3분을 고민하다보니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그냥 될 대로 되다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나서 활활 열어 제켰다(라기엔 조금 소심했음지도...).

그 분홍색 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그러니까, 내가 찾아온 건 세미나니까 세미나는) 내가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것들 투성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정말 순수하게 나일 수 있었고, 또 반대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볼으로써, 나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객체화시키는 패에만 익숙해왔던 나는 상대방을 나와 합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깊숙이 살펴보고, '상대방'이라는 벽을 허물고 '우리'라는 마음의 공간을 세워 함께한다는 게 내게는 너무도 흥분한 경험이었다.

또 나는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이나 배워왔다.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야 한다는 것, 말을 듣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야 한다는 것, 표정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몸짓을 사랑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화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것... 이런 다른 세미나에서는 겪어 볼 수 없었던 그런 소중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주 소중한 누군가의 배움조차도(나를 포함하여) 다른 이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다가왔다. 그게 정말 '진심'이고 '나' 자신이고, 확대해서 그게 또 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수 있는' 파스텔 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세미나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날 행복하게 했다.

'총여 공동체' 속에서 나를 나누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하고, 또 세미나에서 만난 많은 진실된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수다를 떨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는 내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 가면 나는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났던 고민들 - 여성주의와 관련되었건 아니건 상관없이 - 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와 세상이 생긴 것만 같다. 여성주의라는 것은, 굳이 그 이름을 규정짓고 울타리를 세우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동체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저자의 내가 아닌,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잔잔한 변화들, 크게 소리치고 억울해서 주위의 사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 학관 3층의 분홍색 문을 달고 나온다. 학관 계단을 내려온다. 입자로 꼭 붙어있는 백양로가 보인다. 길을 따라 내려가면 학교 정문이 보인다. 그곳을 나서면 신촌이다. 평소 같았다면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더욱 더 비장한 표정으로, 나를 보이지 않을 거야 라는 가면을 썼겠지만, 이제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오히려, 예전의 나처럼 가면을 꼭 쓰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땀'이 있는 내 자신을 내게 보여줘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편찮은데.

by 두

기획

Inside OUT! 이성애중심주의 전복기



레즈비언 운동의 시작은 조금 심심했다. 고도 평가할 수 있었다. 19대 총학생회 선본으로 공약을 홍보하던 시절에도, 강의실 유세 도중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왜 게이 운동은 안 하시냐? 라는 한 학생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기억에 남는 질문이 들어온 적도 없다. 공약에 대한 질문을 가장 가열차게 던지고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학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레즈비언 운동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다. 치열하게 홍보하고 설명하고, 논쟁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레즈비언 운동은 다른 공약 설명 속에 묻혀서, '레즈비언 운동 실시' 정도의 문구로 학내 언론에 실렸을 뿐이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무관심 속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의 구조를 동시에 격파해보겠다는 야심찬 레즈비언 운동은 시작됐다.

모호여지려는 호모포비아를 적면이다

3일간의 레즈비언 문화제는 레즈비언 운동 중에서 가장 크게 벌인 대중행사였다. 화려한 무지개빛 풍랑을 학관에서 중도로 펼쳐들고 행진한 개막식을 필두로, 신나게 시작했다. 하지만 레즈비언 문화제 첫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년 여성에게 홍보 현수막이 차례로 찢겨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분노를 드러내며,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독교인도 몇 차례 찾아왔다.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 무차별적 테러와 맹목적인 믿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했고, 동시에 이 사

회가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너무나 명확히 눈앞에 나타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호모포비아를 폭로하고, 레즈비언의 존재를 가시화하려던 문화제는 레즈비언의 억압과 호모포비아적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적나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보니, 19대 총학생회 선거 기간에,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을 따라다니며 르포 형식의 기사를 쓰려고 했던 연세 춘추 수습기자 한 명이 생각한다. 총학생회에서부터 선거 활동까지 이것저것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대는 기사를 물리칠 순 없어서 계속 대답해주었다. 그러다 기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의 '개인적' 질문을 했다. 그리고 질문 전에, 자신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친구들의 호기심을 대변해서 하는 질문임을 길게 설명했다. 질문은, "왜 레즈비언 운동을 하는가?"였다. '대다수'의 자신의 친구들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의 초점은 왜 레즈비언이 레즈비언인가도 아니고, 왜 부정적인 명칭인 운동인가도 아니었다. 왜, 도대체 왜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에서 다수의 학생이 거부감을 느끼는 레즈비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느냐는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레즈비언 운동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수의 학생이 거부감을 느낄 거라는 사실은 이미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기자의 질문을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 기자가 질문 전에 늘어놓았던 이야기와 이 질문의 회귀성 때문이다. 레즈비언 운동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학생회에 언제나 다수 학생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던 언론사들이 왜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단 한명의 수습기자만이 나에게 '개인적' 질문을 한 것인가.

왜 레즈비언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그 기자는 처음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인권을 온하게 저너머 레즈비언 별나라 어느 곳에 있는 듯했다. 기자는 자신의 주변에 레즈비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학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성애자 친구 외에 아웃팅 위험 때문에 자신의 인권에 의견 보류를 결언한 레즈비언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자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소수', '다양성'이 진보적 지식인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진보'에 대한 감각관념은 스스로의 호모포비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모포비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억누르게 할 뿐이다. 그리고 억눌려왔던 호모포비아는 레즈비언 문화제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되었다.

5월 31일 (목) 오후 7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도

억눌러온 호모포비아든, 표출된 호모포비아든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변화할 수 없다. 나의 일상, 나의 정체성, 나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들 속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안의 호모포비아를 직면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레즈비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레즈비언을 들여다보는 역할

은 문화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처럼 레즈비언을 타자화 시키는 호모포비아를 재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은 이 사회의 이성애 말하기 방식을 되풀이한다. 개인의 정체체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이성배우자와 행복하게 산다"라는 해피엔딩을 학습 받아왔다. 그 속에서 이성친구라는 단어가 곧 애인을 뜻하는 등의 이성애적 말하기 방식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레즈비언

이런 일상적 이성애적 말하기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레즈비언 운동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곧바로 개인에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이성애중심적 사회 속에서, 경험 말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총학생회 소통 방식 역시 이성애자의 말하기 권력을 강화시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는 변태다"라는 입장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아웃팅될 지도 모른다. 압박은 성소수자들에게 만들어진 정체체성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호모포비아가 가져오는 결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레즈비언 운동에 있어서, 학내에서 "자신의 정체체성"을 드러내, 주어진 정체체성, 주어진 역할로서 말하기" 방식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성애적 말하기 구조를 세미나에서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이성애적 말하기 구조를 차용하였지만, 이성애자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간주됨으로써의 말하기 방식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경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억압적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적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두 레즈비언으로 간주되어 진행된 세미나 속에서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세미나는 고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성애중심적 입장은 바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핵심에, 억압의 원천이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했는지언정, 그것은 폭력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서로를 끌어매고 있는 억압의 해체를 위한 것이다.

레즈비언 운동, 끝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생회관

전시: 당신과 나
나를,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나는 레즈비언을 타자화 시키는 호모포비아를 재생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은 이 사회의 이성애 말하기 방식을 되풀이한다. 개인의 정체체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이성배우자와 행복하게 산다"라는 해피엔딩을 학습 받아왔다. 그 속에서 이성친구라는 단어가 곧 애인을 뜻하는 등의 이성애적 말하기 방식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레즈비언
(금) 오후 7시 장소
5월 31일~6월 1일 오전 10시~오후 6시
학생회관 앞 부를 열 가는 길

기획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아래스목>의 일년나기



따뜻하고 색다른 공간을 찾아

공간시간에 낮잠을 즐기고, 펄펄 거리고, 시험기간이면 중도에서 밤샘공부를 하다 지쳐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여휴는 여학생들에게 편안한 삶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여휴에서 잠시라도 쉬어가 본 여학생들이 있다면 여휴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냉난방과 공기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과연 여학생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19대 총학생회는 도대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어 있는 여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 함께해요!' 라는 플람을 벽안로에 걸었고, 하나 둘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회의에서 여휴 환경개선팀 '아랫목'이 결성되었다. 여학생휴게실이 아랫목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라며,

여학생 휴게실이 색다른 공간으로 변하면 어떨까?

한 친구는 여휴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물론 전혀 모르는) 옆의 여학생에게 괜히 말을 걸어본다고 하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여학생들이 여휴에서 쉬어 가는데, 여학생들만이 모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서로의 소통이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여휴는 단지 쉬의 공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재밌고 색다른 공간으로 바뀌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여휴 문화제라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여휴에서 함께 영화도 보고, 사진전도 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글을 공모하였고, 전시는 학내 5개의 여휴에서 5일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여휴 문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이 여휴에 찾아오지는 않았다. 처음엔 여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문화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여휴라는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학생이 여휴를 휴식의 공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으며, 문화제를 통해 여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문화제를 진행하였지만, 여휴라는 공간에 대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한계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한계점을 남긴 채 여휴 문화제는 끝났다. 여휴가 휴식 외의 공간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장으로 이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츰 여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 여휴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휴 너무 재미!

2007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랫목>에서는 여학생 휴게실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학내에 있는 13개의 여휴를 조사하며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측에서 대외홍보용으로 만든 생색내기식의 여휴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소파는 턱없이 부족하며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만 구비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해 여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이곳저곳에서 토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여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여휴의 경우 단지 공간만 주어진 채 방치된 곳이 대다수였다. 단과대 여학생들의 절대수에 비하여 턱없이 좁은 공간, 관리부족 등 그 실태는 열악함 그 자체였다. 이렇듯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명확한 체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여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여휴라는 공간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여휴는 공동 공간'이라는 의식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의한 최소한의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

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랫목>에서는 '여학생 휴게실 환경개선 요구안'과 '여학생휴게실 이용수칙'을 작성하였고, 각 단과대 회장들과 함께 논의를 하였다. 여휴 환경개선 요구안은 현재 44대 총학생회 전체 요구안으로 의결되었으며, 각 단과대 여성주체들과 함께 여휴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07 여학생휴게실 환경 개선팀 <아랫목>을 마무리하며

<아랫목>에서는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집 발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운동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가득 담아보려

한다. 2007 여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운동팀은 프로젝트 팀으로서 활동을 이끈하기로 마무리 한다. 하지만 그 동안 <아랫목> 활동을 바탕으로 여학생휴게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가진 여학생들이 생겨나고, 여휴를 이용하는 수많은 여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여휴 환경개선 운동이 진행되길 바란다. <아랫목>의 일년은 즐거운 상상과 행복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여휴에서 쉬어가는 많은 여학생들이 앞으로 여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함께 인식하고, 앞으로도 즐거운 여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대하서라 사형사방 <아랫목> 자료집

5회 생존자말하기대회

언중유희

이리오여라, 씹고 놀자!

- 일 시: 11월 3일(토) 오후 6시~9시 (오후 5시부터 사전 접수 오픈)
- 장 소: 상상마당 라이브를 (지하철 5호선 종대입구역)
- 주 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후 원: 여성가족부
- 참여신청: www.sisters.or.kr/speakout 에서 신청서를
다온받아 10월 31일까지 speakout@sisters.or.kr 로 신청

기획

Inside OUT! 이성애중심주의 전복기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5.30~6.1

레즈비언 운동의 시작은 조금 심심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었다. 19대 총여학생회 선본으로 공약을 홍보하던 시절에도, 강의실 유세 도중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왜 게이, 운동은 안 하시나요?'라는 한 학생의 질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기억에 남는 질문이 들어온 적도 없다. 공약에 대한 질문을 가장 가열차게 던지고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할 학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레즈비언 운동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받지 못했다. 치열하게 홍보하고 설명하고, 논쟁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레즈비언 운동은 다른 공약 설명 속에 묻혀서, '레즈비언 운동 실시' 정도의 문구로 학내 언론에 실렸을 뿐이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던 무관심 속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부장제의 구조를 동시에 격파해보겠다는 야심찬 레즈비언 운동은 시작됐다.

모모에게서는 호모포비아를 적면이다

3일간의 레즈비언 문화제는 레즈비언 운동 중에서 가장 크게 벌인 대중행사였다. 화려한 무지개빛 플래카드를 학관에서 중도로 펼쳐들고 행진한 개막식을 필두로, 신나게 시작됐다. 하지만 레즈비언 문화제 첫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년 여성에게 홍보 현수막이 차례로 찢겨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분노를 드러내며,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독교인도 몇 차례 찾아왔다.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 무차별적 테러와 맹목적인 믿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답했고, 동시에 이 사

회가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를 너무나 명확히 눈앞에 나타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호모포비아를 폭로하고, 레즈비언의 존재를 가시화하려면 문화제는 레즈비언의 억압과 호모포비아적 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적나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보니, 19대 총여학생회 선거 기간에,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을 따라다니며 르포 형식의 기사를 쓰려고 했던 연세 춘추 수습기자 한 명이 생각난다. 총여학생회에서부터 선거 활동까지 이것저것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대는 기사를 물리칠 순 없어서 계속 대답해주었다. 그러다 기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의 '개인적' 질문을 했다. 그리고 질문 전에, 자신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친구들의 호기심을 대변해서 하는 질문임을 길게 설명했다. 질문은, "레즈비언 운동을 하는가?"였다.

'대다수' 자신의 친구들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의 초점은 왜 레즈비언인가 레즈비언인가도 아니고, 왜 부정적인 명칭인 운동인가도 아니었다. 왜, 도대체 왜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에서 다수의 학생이 거부감을 느끼는 레즈비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느냐는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레즈비언 운동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수의 학생이 거부감을 느낄 거라는 사실은 이미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이 기자의 질문을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그 기자가 질문 전에 늘어놓았던 이야기와 이 질문의 회귀성 때문이다. 레즈비언 운동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총여학생회에 언제나 다수 학생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던 언론사들이 왜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단 한명의 수습기자만이 나에게 '개인적' 질문을 한 것인가.

왜 레즈비언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그 기자는 처음부터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인권을 온하게 저너머 레즈비언 별나라 어느 곳에 있는 듯했다. 기자는 자신의 주변에 레즈비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악감을 표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성애자 친구 외에 아웃팅 위험 때문에 자신의 인권에 의견 보류를 걸어놓은 레즈비언 친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자는 그 질문을 할 수 없었다.

'소수', '다양성'이 진보적 지식인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 '진보'에 대한 강박관념은 스스로의 호모포비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감을 버리지도 못하게 한다. 다만 억누르게 할 뿐이다. 그리고 억눌려왔던 호모포비아는 레즈비언 문화제에서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었다.

5월 31일 (목) 오후 7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도

억눌러온 호모포비아든, 표출된 호모포비아든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변화시킬 수 없다. 나의 일상, 나의 정체성, 나의 다양한 사회적 위치들 속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나의 호모포비아를 직면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레즈비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레즈비

언 문화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처럼 레즈비언을 타자화 시키는 호모포비아를 재생산하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은 이 사회의 이성애 말하기 방식을 되풀이한다. 개인의 정체체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이성배우자와 행복하게 산다"라는 해피엔딩을 학습 받아왔다. 그 속에서 이성친구라는 단어가 곧 애인을 뜻하는 등의 이성애적 말하기 방식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레즈비언

이런 일상적 이성애적 말하기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레즈비언 운동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했다.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곧바로 개인에게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이성애중심적 사회 속에서, 경험 말하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총여학생회 소통 방식 역시 이성애자의 말하기 권력을 강화시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는 변태다"라는 입장에 동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면, 아웃팅될 지도 모른다는 압박은 성소수자들에게 만들어진 정체체성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호모포비아가 가져오는 결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레즈비언 운동에 있어서, 학내에서 "자신의 정체체성"을 아닌, 주어진 정체체성, 주어진 역할로 말하기" 방식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성애적 말하기 구조를 세미나에서 되풀이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이성애적 말하기 구조를 차용하였지만, 이성애자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로서 간주됨으로써의 말하기 방식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경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억압적 상황'을 되풀이 하는 것이 오히려 폭력적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두 레즈비언으로 간주되어 진행된 세미나 속에서 레즈비언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세미나는 고통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성애중심적 입장은 바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핵심이며, 억압의 원천이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했는지언정, 그것은 폭력을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억압의 해체를 위한 것이다.

5월 31일~6월 1일 오전 10시~오후 6시
학생회관 일부를 열거는 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생회관

